

주 제:	“믿음과 겸손”	“연중 제 20 주일”	2008년 8월 17일
복음 묵상:	[마태 15,21-28]	[이사 56,1.6-7]	[로마 11,13-15.29-32]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되면 더 열심히,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반면, 내 삶이 기쁜 일로 가득하거나 행복할 때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느님을 잊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을 때, 우리들은 더는 하느님께 바랄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순간의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딸이 마귀에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역시 괴로워하는 딸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에 지친 가나안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잡은 끈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이시며 영혼의 치료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달려있는 구원의 그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청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모욕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겸손이 없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가나안 여인은 당장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가나안 여인의 참다운 믿음과 겸손은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수원 이정재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박마리아 자매님 8/9-17 홍콩에서 자제분을 만나러 휴가를 떠났습니다. 안전한 여행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은 8/1 부터 3 주간의 여정으로 동부를 여행중입니다. 여행중에 주님함께 하시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요청:

1. 김 재훈 세실리아 자매님이 8월 15일(금요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 참석차 성당으로 오던중 자동차가 대파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가대원들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 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기도중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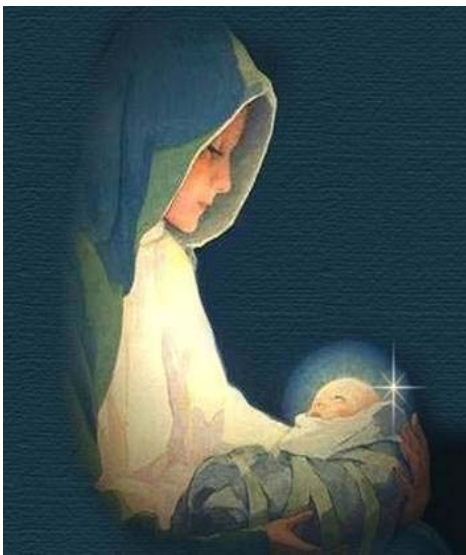
1. 8월 17일 미사후 금봉황에서 신부님 환송을 위한 간단한 파티가 있어오니 모든 단원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신부님을 위한 영적선물: 미사, 영성체, 묵주기도, 화살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희생, 등 신부님을 위한 영적 선물을 기도중에 꼭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3. **성가대 피정(9/13)이 잘 진행되어**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은혜중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와 참가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 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 때에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 오고 있으니 돌려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1분 명상

♡"겸손의 아름다움"♡



우울의 늪에 빠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밝은 웃음입니다

자신을 돋보이려고 기를 쓰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있을 때는 눈에 띄지 않지만
없을 때는 눈에 띄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단지 사랑받기 위한 일인가요?

좋은 친구를 찾기 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도와줄 사람을 찾기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understand'라는 것은 아래에 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늘의 여인처럼...